811.6
O 394ㅅ

碩士學位論文

徐廷柱의『花蛇集』硏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吳 始 烈

1996年 12月

徐廷柱의『花蛇集』硏究

指導敎授 尹 錫 山

吳 始 烈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96年 12月

吳始烈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6年 12月

A STUDY ON 『HWA-SAH COLLECTION』 OF SEO JEONG-JU'S

SEE-YOUL OH
(Supervised by Professor Seok-San Yo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6.

目　　次

Ⅰ. 緖論 1

Ⅱ. 話者와 意味的 局面 5
1. 세 類型의 話者 5
2. 背景의 調整 13
3. 語調의 選擇 25

Ⅲ. 話者와 組織的 局面 31
1. 統辭論的 層位 32
2. 語彙論的 層位 38
3. 音韻論的 層位 41

Ⅳ.『花蛇集』의 特質 및 詩史的 位置 47

Ⅴ. 結論 51

* 참고 문헌 55
* Abstract 5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緖　論

未堂 徐廷柱(1915 -)는 1931년 <東亞日報>에 시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발표한 뒤 1936년 동지 신춘문예에 「壁」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한 시인이다. 그는 팔순을 넘어 현재까지 14권의 시집[1]을 펴내면서, 대립과 갈등의 초기시에서 출발하여 안정과 균형의 질서 구축의 중기시를 거쳐, 보다 성숙한 자아실현의 세계로 지향하는 후기시까지 다양한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업적으로 인하여 그는 현존하는 인물인데도 이미 고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인이다. 그로 인해 그의 시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미당 시에 대한 연구 결과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그의 시정신에 관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시 특질과 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첫째로 시적 변모 양상에 대한 연구는 대개 초기시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다가 후기시로 올수록 '안정과 조화와 달관'의 세계를 보인다는 연구[2]와 가장 왕성한 시작활동을 했던 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1) 제 1시집 『花蛇集』 (남만 서고, 1941), 제 2시집 『歸蜀途』 (선문사, 1946), 제 3시집 『徐廷柱 詩選』 (정음사, 1955), 제 4시집 『新羅抄』 (정음사, 1960), 제 5시집 『冬天』 (민중서관, 1968), 제 6시집 『질마재 神話』 (일지사, 1975), 제 7시집 『떠돌이의 詩』 (민음사, 1976), 제 8시집 『西으로 가는 달처럼…』 (문학사상사, 1980), 제 9시집 『鶴이 울고간 날들의 詩』 (소설문학사, 1982), 제 10시집 『안잊히는 일들』 (현대문학사, 1983), 제 11시집 『노래』 (정음문화사, 1984), 제 12시집 『팔할이 바람』, (혜원출판사,1988), 제 13시집 『山詩』 (민음사, 1991), 제 14시집 『늙은 떠돌이의 詩』 (민음사, 1993)

2) 조연현, 「원죄의 형벌」, (조연현 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천이두, 「지옥과 열반」, (조연현 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기시를 중심으로 '신라 정신' 또는 '영원주의'에 관한 연구들[3]이 대부분이다. 미당의 초기시를 다룬 연구에서는 당시 다른 시인들과 구분되는 시의 진정성을 찾아내거나[4] 미당 시의 변모 과정을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기도 했다.[5]

시적 특질 및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는,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에 근거한 미당 시의 이미지 연구[6], 미당 시의 중심적인 시적 심상을 피와 물로 보는 이미지 연구[7], 미당 시 이미지의 역동성 연구[8], 상징에 관한 연구[9]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은 테마 중심의 인상 비평이거나 구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다.

시인은 테마나 시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먼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인 話者를 선택한다. 그 후 그에 맞는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부여하고 화제를 진술할 것이지, 은유할 것인지의 구조적 부분을 정하게 되며 어조와 선택되는 시어 또한 화자에 의해 선택된다. 따라서 시에서의 화자는 서사적 장르에서의 해설자나 중개자의 기능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주인물의 성격을 지닌 존재로서 意味的 局面에서 組織的 局面까지 모든 부분의 주체이다.[10] 그러므로 시에 대한 분석은 바로 이 화자를 규명하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3) 김학동, 「신라의 영원주의」 『어문학』 24, 1971, 4
최원규, 「서정주와 불교정신」 『한국현대시사연구』, 일지사, 1983
이광호, 「영원의 시간, 봉인된 시간」(조연현 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4) 김우창, 「한국시와 형이상」, (조연현 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5) 육근웅, 「서성주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6) 김재홍, 「하늘과 땅의 변증법」, 《월간문학》, 1971. 5.「대지적 사랑과 우주적 조응, 《현대문학》, 1975.

7) 하재봉, 「서정주 시에 나타난 물질적 상상력 연구」, 중앙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8) 황인교, 「서정주 시의 상상력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9) 김영수, 「서정주 시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81.
김지연, 「서정주 시의 상징에 관한 연구 - 『花蛇集』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10) 윤석산, 『현대시학』, 새미, 1996. p. 113. 참조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화자 연구는 다른 시적 요소들과의 연관을 통해 작품의 특질을 유기적으로 규명해 줄 것이고, 화자 이론 적용의 필요성을 확대시켜 객관적 문학 연구의 방법론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화자에 대한 해석은 시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화자는 완전한 시인 자신의 반영도, 완전한 허구적 존재도 아닌 折衷的存在인 <詩人≒話者>[11]로 보고자 한다. 그러면 시에서의 화자 연구는 시인과 작품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기존의 미당에 대한 연구들은 객관적 방법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시를 <話者 - 話題 - 聽者>라는 역동적 관계에서 탄생되는 談話(discourse)라는 관점으로 볼 때, 어떤 한 가지 요소만을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화자 이론의 객관적인 방법론을 통해 미당시 각 요소들간의 치밀한 분석과 이들과의 종합적인 연관 관계 규명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런 화자 이론을 적용해 연구된 것으로는 윤석산[12]과 변종태[13]의 논문이 있는데 전자는 산발적으로 연구되었고, 후자는 화제의 초점과 거리에 편중되어 화자의 포괄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시의 전체 층위를 크게 <意味的>, <組織的> 局面으로 나누어, 의미적 국면에서는 화자와 그에 따른 배경 그리고 화제를, 조직적 국면에서는 화자가 선택한 시어를 통사론적 층위, 어휘론적 층위, 음운론적 층위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미당은 첫 시집인 『花蛇集』 이후에 여러 단계의 변모 과정을 밟고 있는데, 보통 초기시를 구분할 때는 『花蛇集』 (1941), 『歸蜀途』 (1946))

---

11) 윤석산 외 「문학의 이해」, 태학사, 1994. p.99.
12) 윤석산, 「소월시 연구」, 태학사, 1992. p. 10. 참조
13) 변종태의 「미당 초기시의 연구-화제, 초점, 거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까지를 말한다. 이 초기시 중에서 『花蛇集』(1941)은 한국시의 전통적인 관습과는 이질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14] 이런 강한 시적 특질을 드러내는 『花蛇集』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화자 이론을 통한 미당의 『花蛇集』 연구는 객관적 문학 연구 방법론의 확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나아가 미당 초기시 세계의 특질을 규명하고, 당대 다른 시인들과의 변별성과 미당의 시문학사에서의 위치도 분명히 해 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4) 육근웅, 「서정주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0.

Ⅱ. 話者와 意味的 局面

시에서의 '意味的 局面'이란 작품의 주제 또는 내용에 해당하는 국면으로서, 이 국면에 관계되는 요소로는 <話者>, <話題>, <狀況과 背景> 등이 있다. 시인은 문학적 충동이 일어나면 곧바로 기술하지 않고 먼저 그에 적합한 시적 인물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상황과 함께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부여한다. 따라서 시에서 의미를 지배하는 것은 시적 인물인 화자가 된다.

이런 화자의 유형은 보통 성 · 사회적 계층 · 연령 등의 기준이 다라 분류된다. 그리고 동일 화자라 하더라도 담화의 어느 층위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표층적 화자와 심층적 화자로 나눌 수 있고, 또한 화자의 태도와 정서 상태에 따라 문명화자와 원시화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중에서 각 부분의 요소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유형이다.

화자의 유형 분류는 화자들의 특질을 규명하고 각 국면의 요소들과의 연관성을 살피기 위한 기본이 된다. 『花蛇集』에 나타난 화자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세 類型의 話者

『花蛇集』의 화자는 대부분이 남성화자이며 문맥의 표면에서 남성화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花蛇集』에서의 화자의 분류 기준은 아니마(anima)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런데 화자의 성은 인간의 신체적 특징처럼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화자의 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채택한 아니마는 아니무스(animus)와 함께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이성에 대한 경험의 침전물로서 절대적 경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관념이며 상대적으로 비교우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여성적'이니 '남성적'이니 하는 관념은 <양>과 <위치>와 <빈도>의 차이를 지닐 뿐이다. 따라서 성별에 의한 화자의 유형은 <女性化된 男性話者>나 <男性化된 女性話者> 같은 중간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15]

본고에서는 어떤 요소가 많이 강화되고 약화되느냐에 따라 기본형(0)에다 (+)와 (-)의 유형을 집어넣고자 한다.[16] 기본적인 <남성화자>에서 더욱 남성적 요소가 강화되면 <M^{+}형>화자, 여성적 요소가 가미되어 상대적으로 남성적 요소가 약화되면 <M^{-}형>화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화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대부분 남성화자인 『花蛇集』에서는 화자가 대상에 대해 분리되어 중립적인 태도로 개관적 입장에서 말을 하기도 하고, 화자가 분리되어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의 중립적 형태로도 드러난다. 따라서 남성화자로서 그 성격이 중립적이면 기본형인 <M^{0}형>화자, 적극적이면 <M^{+}형>화자, 소극적이면 <M^{-}형>화자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작품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서를 드러낸 작품이다.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겠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

15) 윤석산, 『현대시학』, p125.

16) 윤석산, 앞의 책, p.125 참조
남성을 <M>, 여성을 <F>라고 하고 <+>와 <0>, <->로 강화 정도로 표시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깜한 에미의 아들.

<후략>

-「自畵像」에서

이 작품 속에서의 '애비는 종이었다'는 화자의 자기 고백적인 표현이며 자조적인 목소리다.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깜한 에미의 아들'이란 화자의 비하적인 표현은 전통적 낭만주의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시에서의 화자는 자신의 부정적 측면을 말하기 위해 대상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화자 자신이 대상과 분리되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화자가 바로 기본형인 <M^0형>화자가 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덧없이 바래보든 壁에 지치어
불과 時計를 나란이 죽이고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아닌
여긔도 저긔도 거긔도 아닌

<중략>

이제 진달래꽃 벼랑 햇볓에 붉게 타오르는 봄날이 오면
壁차고 나가 목매어 울리라! 벙어리처럼,
오 - 壁아.

-「壁」에서

이 시의 화자는 문이 없는 '壁'에 갇혀 있다. 탈출의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덧없이' 壁을 바라보다가 '불과 時計를 나란이 죽이고' 있다. 이 화자는 탈출을 하다 지쳐버린 상황이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완전히 좌절한 상태도 아니다. 남성화자이면서도 완전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여성화자처럼 완전히 체념하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작품도 기본형인 <M^0형>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를 시인과의 절충적 존재로 볼 때, 이런 화자의 태도는 시인의 의식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金昞澤은 이런 시인의 의식을 초기시에 나타난 울음과 연관지어 시인의 내면 속에 자리잡은 패배의식과 좌절의식의 반영으로 보면서 " '壁'차고 나가 밤새 우는 '울음'은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고 난 다음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여전히 한계적 비극상황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울음들은 1930년대의 한국의 사회 상황과 결코 분리될 수는 없는 일이다. 말하자면 개인의 詩的 경험이 사회와 국가에까지 자연스럽게 파급되고 있다."[17]고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은 시인이 사회 현실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으로, 『花蛇集』에서 화자의 유형 중 <M^0형> 화자가 세 가지 유형 중 기본형으로 그 화자가 남성화자이면서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화자로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런 화자의 등장은 당시 다른 시에서의 화자와 변별적 요인이 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壁」과 「自畵像」 외에 5개의 작품(「門」, 「葉書」, 「바다」, 「문둥이」, 「부흥이」)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본적 남성화자인 <M^0형> 화자에 비해 다음 작품은 강렬한 육욕의 세계가 강화된 작품들이다.

---

17) 金昞澤, 「詩的 現實과 想像力」(『바벨탑의 언어』, 文學藝術社, 1986) p.3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전략>
돌 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麝香 芳草ㅅ길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아내가 이브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石油 먹은 듯… 石油 먹은 듯… 가쁜 숨결이야

바늘에 꼬여 두를까부다.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

클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흔 입설이다.… 슴여라! 베암.

우리 순네는 스믈 난 색시, 고양이같이 고흔 입설… 슴여라! 베암.

-「花蛇」에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 작품에서의 '베암'은 '징그라운 몸둥아리'지만 '아름다운 베암'이며 '꽃다님' 같은 대상이다. '베암'은 성서에서 原罪 의식을 느끼게 하는 동물이다. 따라서 '이브를 꼬여내든 달변의 혓바닥'이 된다. 그러나 '石油 먹은 듯… 石油 먹은 듯… 가쁜 숨결'은 '클레오파투라'의 서양적 관능성과 '순네'의 동양적 관능성이 결합되면서 유혹과 쾌락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베암'을 원죄의식의 동물로 저주하면서 '돌팔매'를 쏘지만, 그것은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과 '클레오파투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흔 입설'을 지닌 아름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화자는 강한 본능의 세계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본능적인 성의 세계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은 공격적이고 남성화자의 강렬한 형태인 성적인 갈망을 원시화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기본적인 <남성화자>에 비해 대상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

이고 공격적이다. 이런 남성화자의 강화된 모습이 <M⁺형> 화자이다. 다음 작품에서도 본능에 몰입하는 남성화자의 강렬한 모습이 드러난다.

<전략>
핫슈 먹은 듯 취해 나자빠진
능구렝이 같은 등어릿길로,
님은 달어나며 나를 부르고…

강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
두 손에 받으며 나는 쫓느니

밤처럼 고요한 끌른 대낮에
우리 둘이는 웬몸이 달어…
-「대낮」에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핫슈 먹은듯 취해 나자빠진' 길은 환각 상태의 길이다. 핫슈는 아편의 일종으로 그 길은 아편을 먹은 것처럼 몽롱한 길이며, 화자는 그런 심리적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런 길에서 화자는 소극적인 태도로 달아나며 구애하는 님의 뒤를 '강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를 '두손에 받으며' 열광적으로 쫓고 있다. '코피'의 냄새마저 '강한 향기로' 느껴지는 것은 화자의 상태가 강한 본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밤처럼 고요한 끌른 대낮'에 두 사람은 강한 성욕에 몸이 달아 있다. 뜨거운 열기가 대낮의 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젊은 남녀의 뜨거운 육욕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관능적인 몸부림으로 '님'을 따라가며 본능에 몰입하는 화자는 강화된 남성화자의 특질이다.

이런 화자의 등장은 미당이 '보들레르'에서 받은 영향과, 당시의 암울하고 폐쇄된 상황이 부른 성적인 탐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원시

적이고 비문명적인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1930년대 <시인부락>을 통해 강조한 '생명 탐구'의 표방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花蛇集』 24편의 시 중에서 위의 두 편의 시 외에도 7편의 시(「麥夏」, 「입마춤」, 「桃花桃花」, 「正午의 언덕에서」, 「高乙那의 딸」, 「雄鷄(上)」, 「雄鷄(下)」)가 여기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 본 기본적 <남성화자>와 강화된 <남성화자>의 두 유형과는 전혀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유형의 작품들도 있다.

> 내 너를 찾아왔다… 兒娜. 너참 내앞에 많이 있구나 내가 혼자서 鐘路를 거러가면 사방에서 네가 웃고 오는구나. 새벽 닭이 울때마닥 보고싶었다… 내 부르는 소리 귓가에 들리느냐. 兒娜, 이것이 몇萬時間이냐.
>
> <중략>
>
> 네거리에 뿌우여니 흐터져서, 뭐라고 조잘대며 햇볓에 오는 애들. 그 중에서도 열아홉살쯤 스무살쯤되는 애들. 그들의 눈망울속에, 핏대에, 가슴 속에 드러 앉아 兒娜! 兒娜! 兒娜! 너 인제 모두 다 내 앞에 오는구나.
>
> -「復活」에서

위 작품의 화자는 젊은 날 사랑했던 '兒娜'를 생각하며 그 유나에 대한 환상을 꿈꾸고 있다. 죽은 유나가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그리움이 과거와 현실 속에서 여성적 애절함으로 드러나고 있다.

>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나서
> 머리깜어 느리여도 능금만 먹곺어서
> <중략>
> 山봐도 山보아도 눈물이 넘처나는

蓮順이는 어쩌나… 입술이 붉어 온다.

-「가시내」에서

이 작품의 화자 역시 처음부터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나서' 라고 말하고 있다. 이 표현은 화자가 가시내에 대해 가엾어하는 여성적 감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머리깜어 늘여도 능금만 먹고' 싶어하는 연순이를 화자는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처녀가 입덧을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일이다. 하지만 화자는 눈물나는 연순이를 '蓮順이는 어쩌나… 입술이 붉어 온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면서 화자의 여성적 정서가 가미된 남성화자가 된다.

화자가 대상에 대해 몰입하면서 여성적인 감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화자는 기본적 남성화자에 비해 감성적·수동적인 경향의 화자이다. 따라서 <M 형>이 된다. 다음 작품에서도 화자의 대상에 대한 애절한 정서와 감상적 태도가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속눈섭이 기이다란, 게집애의 年輪은
댕기 기이다란, 붉은 댕기 기이다란, 瓦家千年의 銀河물구비… 푸르게만 푸르게만 두터워갔다.

<중략>

고요히 吐血하여 소리없이 죽어갔다는 淑은,
유체 손톱이 아름다운 게집애였다한다.

-「瓦家의 傳說」에서

'부끄러운 게집애'와 '靑蛇'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瓦家에서 화자는 그 '부끄러운 게집애'를 '유체 손톱이 아름다운 게집애였다한다.' 로 애절하게 그리고 있다. 내려오는 전설은 과거의 이야기이다. 이런 과

거의 이야기는 주로 여성적인 정서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화자는 <남성화자>이지만 <여성화자>가 가미된 화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화자의 등장도 역시 그 시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 과거를 지향하거나,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 현실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는 화자인 것이다.

앞의 세 작품 외에 고향과 고향의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작품인 「水帶洞詩」를 비롯해 5편의 작품(「水帶洞詩」, 「봄」, 「서름의 江물」, 「斷片」, 「西風賦」)이 이 유형의 화자에 해당된다.

2. 背景의 調整

시에서의 의미도 다른 문학과 마찬가지로 행위 주체와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때 행위는 시간적·공간적 배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행위의 주체인 화자 또한 배경과 상황을 떠나서 얘기될 수 없다.

시인은 테마에 따라 화자를 선택하고, 그에 어울리는 상황과 함께 시간적·공간적 배경은 부여한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게 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한다. 시간과 공간은 존재 구성의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담화의 의미적 국면은 화자가 처한 상황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작품 속에서의 배경은 시인이 의도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시인은 등장인물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것만을 골라 배경으로 조직하며, 작중인물의 심리에 따라 그 배경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왜곡되기도 한다. 따라서 작품 속의 배경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와 미학적 법칙의 지배도 받는다.

이런 배경은 크게 <물리적 배경>과 <상황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배경은 존재 구성의 필수 요건이라면, 상황적 배경은 절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립 공간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존재체에 뒤따르는 부수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시는 순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장르이다. 즉 서정적 장르에서는 물리적 배경이 前景化되고, 상황적 배경은 後景으로 물러서는 것이 보통이다.[18] 물리적 배경은 다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다.

화자의 등장 무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시에서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19]라고 할 수 있는 배경은 화자의 욕망을 조장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잘 짜여진 작품이 되려면 무엇보다 배경을 기능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주체의 욕망이 강렬할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이 그 욕망에 의해 바뀌기도 한다. 즉 배경이 작중 인물의 행동을 은유할 수 있지만, 작중 인물의 심리 상태가 배경을 조정하기도 한다. 일상적인 배경도 화자의 욕망이 정상을 이탈하거나 심한 갈등에 부딪히면 그 배경이 부분적으로 왜곡되거나 수정되고 수정한 부분이 전경화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花蛇集』에서의 배경 분석은 時間的·空間的 背景으로 나누어 화자가 어떤 배경을 선택하고 어떻게 조정했는지 살피고자 한다. 여기서도 어느 한 쪽이 강화되면 <+>로, 어느 한 쪽이 약화되면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해 보겠다. 이것은 앞에서 나뉜 화자의 유형과 배경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그것들이 어떤 유기적 관련을 맺으면서 특질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시간적 배경은 크게 <빛의 시간>, <어둠의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빛의 시간>은 '낮'의 시간이며, <어둠의 시간>은 '밤'의 시간이다. 프라이(N. Frye)의 설명에 의하면, 빛의 시간에는 아니무스(animus)가 강화되고, 어둠의 시간에는 아니마(anima)가 강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빛

18) 윤석산, 같은 책, p. 173.
19) R. Welle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이경수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1987). p.328 참조

의 시간인 <대낮>을 남성적이라고 한다면, 어둠의 시간인 <밤>은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이와 같이 하루의 주기를 낮과 밤으로 나누고, 어둠의 시간을 여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낮 동안의 활동을 중지하고 자기 생활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비극적 리비도(tragic libido)가 활동하기 때문이다.

빛의 시간인 <L(Lightness)형>과 어둠의 시간인 <D(Darkness)형>은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빛의 시간인 <L형>이 어둠의 요소를 밑에 깔고 드러날 경우도 있으므로 그 경우, 빛과 반대되는 요소가 첨가되므로 <->의 개념이 들어가 <L 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둠의 시간인 <D 형>도 마찬가지로, 어둠과 반대되는 요소가 첨가되면 <->의 개념이 들어가 <D 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두 배경이 모두 드러나는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공간적 배경은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열린 공간은 주로 자연 속에 존재하는 공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닫힌 공간은 가리어진 공간을 말하지만, 화자의 심리가 상실과 부재의 상태로 드러날 경우도 닫힌 공간 속에 존재한다. 이런 공간적 배경 역시 시간적 배경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정서 상태에 따라 조정된다.

그런데 열린 공간 속에서도 닫힘을 지향하는 요소가 깔릴 수 있고, 반대로 닫힌 공간 속에서도 열림을 지향하는 요소가 깔릴 수 있다. 『花蛇集』에서는 열린 공간인 <O(Open)형>, 닫힌 공간인 <C(Close)형>과 열린 공간이면서도 닫힘을 지향하는 공간인 <O 형>, 그리고 열림과 닫힘이 복합적이지만 닫힘의 요소가 강한 <Co형>으로 나눌 수 있다.

『花蛇集』에서는 화자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적·공간적 배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음 작품은 화자의 유형 중에서 <M^0형>의 화자가 드러난 작품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저놈은 대체 무슨 심술로 한밤중만 되면
차저와서는 꿍꿍앓고 있는 것일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또 나와 나의 안해될 사람에게도
분명히 저놈은 무슨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략>

-「부흥이」에서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에 대한 불평을 '부흥이'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한밤중'만 되면 찾아와서 '꿍꿍앓고' 있는 부흥이에게서 화자는 불만을 찾아내고 있다. 그 불만은 '나의 詩'이기도 하고 '나의 表情'이기도 하다. 게다가 '흐트러진 머리털 한가닥까지' 엿보면서 갖는 불만이다. 이런 불만은 화자가 자신에게 갖는 불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생겨난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환한 대낮이기보다는 조용한 어둠의 시간이 적합하다. 어둠의 시간은 낮 동안의 활동을 중지하고 자기 생활을 되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색의 시간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간적 배경은 <D형>이 된다.

공간적 배경 역시 시간적 배경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열린 공간이 아니라 닫혀진 공간이다.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은 열려진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한정된 공간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공간적 배경도 <C형>이 된다. 다음의 <M^0형> 화자가 드러난 작품 작품에서도 시간적·공간적 배경은 어둠과 닫힘 속에 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깜한 에미의 아들.
甲午年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도라오지 않는다 하는 外
할아버지의 숯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후략>

-「自畵像」에서

화자는 과감히 자신을 낮추어 '애비는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상황 인식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이런 화자는 어둠 속에서 그리고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인 닫혀진 공간 속에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덧없이 바래보든 壁에 지치어
불과 時計를 나란이 죽이고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아닌
여긔도 저긔도 거긔도 아닌

꺼져드는 어둠속 반딧불처럼 까물거려
靜止한 <나>의
<나>의 서름은 벙어리처럼….
<후략>

-「壁」에서

위 작품의 화자 역시 '어둠' 의 시간적 배경 속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에 대해 사색하는 <M^0형> 화자의 작품이다. '불과 時計'를 죽인 채 정지된 시간과 함께 닫힌 공간에 놓여 있다. '壁'이라는 탈출할 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없는 닫혀진 공간 속에서 화자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닫히고 정지된 배경 속에서 <나> 자신도 정지되고 <나>는 '서름의 벙어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M^0형>의 화자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각성하거나 한계를 느끼는 화자들이다. 이런 사색적인 화자의 공간은 개방된 공간이기보다는 닫혀진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적합하며 자신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열려진 공간보다 닫혀진 공간이 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 화자들은 배경에서 <D형>과 <C형>이 된다.

화자의 유형 중 사색적인 <M^0형> 화자의 다른 작품들도 '어둠'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닫힘'이라는 공간적 배경으로 잘 어우러져 있다. 위 작품 외에도 「문둥이」를 비롯한 <M^0형>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이 <어둠> 속에 존재한다.

『花蛇集』에서의 <M^+형> 화자는 관능적인 몸부림의 화자이다. 이런 유형의 화자는 어떤 배경을 선택했는지를 다음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따서 먹으면 자는듯이 죽는다는
붉은 꽃밭새이 길이 있어

핫슈 먹은 듯 취해 나자빠진
능구렝이 같은 등어릿길로,
님은 달어나며 나를 부르고.....
<후략>

-「대낮」에서

이 작품의 배경은 낮이다. 낮 중에서 가장 밝은 '대낮'이다. 그런 낮을 배경으로 강렬한 성적인 느낌을 표출하고 있다. '님'을 쫓아가는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길이 '핫슈'을 먹은 것처럼 몽롱하고 어지럽게 보이고, 이런 길로 '님'을 쫓아가다가 '우리 둘이는 웬몸이 달'고 있다. '끌른' 대낮의 열기가 '님'과 '나'의 열기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시인은 대낮이라는 시간적 배경 앞에 '밤처럼 고요한' 이란 변이소를 집어 넣고 있다. 이것은 어둠을 지향하는 심리적 배경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며, 화자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도덕적 관습과의 갈등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길도 붉은 꽃밭의 사이에 있는 길이다.

시간적으로 대낮이거나 여름은 남성화자가 활동하기에 적합한 배경이다. 하지만 화자의 이야기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므로 화자는 배경을 조정한 것이다. 밤에 본능적인 성관계를 가질 때는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낮의 관능적인 몸부림은 갈등의 정서로 드러난다. 화자의 내면의식 속에 깔린 도덕적 몸부림이 대낮이라는 시간 배경의 한 부분에 어둠이라는 요소를 깔아 가리고 있으며, 공간에도 또한 닫혀진 요소를 넣고 있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따라서 이런 시간적 배경은 밝음 속에서 어둠의 요소가 가미된 유형인 <L 형>이 되고 공간적 배경은 열림 속에서 닫힘의 요소가 가미된 <O 형>이 되는 것이다. 다음 작품에서도 그런 요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콩밭 속으로만 작구 다라나고
울타리는 막우 자빠트려 노코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만 그러면

사랑 사랑의 石榴꽃 낭기 낭기
하누바람 이랑 별이 모다 우습네요.
풋풋한 山노루떼 언덕마다 한마릿식

개고리와 개고리는 머구리와 머구리와
<후략>
-「입마춤」에서

달아나면서도 '콩밭 속으로만' 달아나는 가시내는 본능적이면서 도덕적 관습에서 갈등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화자인 '나'의 어두운 면이나, 무의식적이거나 부도덕한 면이 강하게 조명되면 될수록 그림자의 어둠은 짙어지게 된다는[20]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향(麝香) 박하(薄荷)의 뒤안길이다.
아름다운 베암…
올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라운 몸둥아리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꽃다님 같다.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 내던 달변의 혓바닥이
소리 잃은 채 낼룽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물어 뜯어라. 원통히 물어 뜯어
<후략>
-「花蛇」에서

위 작품의 배경 역시 '麝香 薄荷'가 있는 황홀한 자연이다. 강한 향기가 성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열린 공간이다. 하지만 화자는 '麝香 薄荷의 뒤안길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열린 공간인 <O형>의 공간적 배경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감추려 하고 있다. 이것은 화자의 행동이 내면 세계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것이다. 강렬한 본능의 세계를 완

20)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78. p. 55.

전히 열려진 공간 속에서 赤裸裸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도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심리 속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된다. '저주'와 '유혹' 속에서 화자는 강한 본능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M⁺형>의 화자가 등장하는 다른 작품에서도 공간적 배경은 열린 자연 속에 존재하는 '길'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길은 변이소에 의해 가려진 공간이다. 남성화자는 근본적으로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그러나 본능적인 성의 세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날 경우 화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열린 공간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O⁻형>의 공간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서 먹으면 자는듯이 죽는다는
붉은 꽃밭새이 길이 있어 (꽃밭새이 길 ← 길) -「대낮」에서

·바윗 속 山되야지 식식어리고
피흘리고 간 두럭길 두럭길에 (두럭길 ← 길) -「麥夏」에서

·콩밭 속으로만 작구 달아나고 (콩밭 속 ← 길) -「입마춤」에서

「花蛇」에서 '뒤안길'인 것처럼 다른 작품에서도 '꽃밭새이 길'이거나 '두럭길'이거나 '콩밭 속'이 된다. 이런 <M⁺형>의 화자는 어둠의 요소가 가미된 빛의 시간으로 드러나면서, 공간적 배경은 <O⁻형>으로 닫힘의 요소가 드리워진 열린 공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M⁺형>화자의 작품에서도 이와 같은 변이소가 드러난다. 시간적 배경은 빛의 시간이면서도 어둠을 지향하는 <L⁻형>으로 공간적 배경은 열린 공간 속에서도 닫힘을 지향하는<O⁻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위의 세 작품 외에도 <M⁺형>화자의 작품이 이에 해당된다.

<M⁻형> 화자는 남성화자에 여성적 요소가 가미된 화자로 그리움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러움의 정서가 바탕이 되는 화자이다. 이 유형의 화자는 어떤 시간적 배경을 선택했는지 다음 작품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내 너를 찾아왔다… 臾娜. 너참 내앞에 많이 있구나 내가 혼자서 鐘路를 거러가면 사방에서 네가 웃고 오는구나. 새벽 닭이 울때마닥 보고싶었다… 내 부르는 소리 귓가에 들리느냐. 臾娜, 이것이 몇萬時間이냐. 그날 꽃 喪輿 산넘어서 간 다음 내 눈동자 속에는 빈 하눌만 남드니, 매만저볼 머리카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없드니, 비만 자꾸오고… 燭불밖에 부흥이 우는 돌門을 열고 가면 江물은 또 몇천리지, 한 번 가선 소식없든 그 어려운 住所에서 너 무슨 무지개로 내려 왔느냐. 鐘路 네거리에 뿌우여니 흐터져서, 뭐라고 조잘대며 햇볓에 오는 애들. 그 중에서도 열아홉살쯤 스무살쯤되는 애들. 그들의 눈망울속에, 핏대에, 가슴 속에 드러 앉아 臾娜! 臾娜! 臾娜! 너 인제 모두 다 내 앞에 오는구나.
>
> -「復活」 전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 작품에서 화자는 젊은 날 사랑하는 유나를 '꽃 喪輿'에 실려 보내야만 했다. 그 유나에 대한 정은 식지 않고 더욱 되살아나 '鐘路 네 거리'에서 열아홉 또는 스무살의 여인이 되어 환상 속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바로 유나의 화신인 것이다.

죽은 '臾娜'가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그리움이 과거 속에서는 어둠 속으로 나오다가 현재의 환상 부분에서는 빛으로 드러난다. '꽃 喪輿'를 타고 가버린 곳은 죽음의 세계이며 어둠의 세계이다. 이 어둠 속에서 소식이 없든 臾娜가 '무슨 무지개'를 타고 왔는지 환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뭐라고 조잘대며 햇볓에 오는 애들'이 바로 빛의 시간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배경이지

만 작품의 뒷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둠의 요소가 지배적이다.

이런 정서는 과거 속에 존재하기도 하고 현재 속에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움이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대한 회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밝음과 어둠이 양면으로 자리잡는 <D_L형>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공간적 배경 역시 열림과 닫힘의 교차되는 곳에 있다. 배경은 물리적·심리적 배경을 모두 말한다. 이때 화자의 상실과 부재의 정서는 심리적 배경으로 닫힘의 공간적 배경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엿娜'는 '꽃 喪輿'를 타고 '산 넘어서' 가버리고 없다. 즉 부재와 상실의 세계다. 다른 세상인 저승으로 갔다는 것, 어둠 속인 무덤에 있다는 것은 모두 닫혀진 공간이다. 과거 속에서는 부재·상실의 공간인 닫힘의 공간이 지배적이고 현실 속에서는 '무지개'를 타고 도시의 길가에서 환생으로 되살아나 열림의 공간으로 드러난다. '뭐라고 조잘대며 햇볓에 오는 애들'이 모두 '엿娜'의 分身이 되어 앞으로 다가서는 것이다. 즉 과거 속에서는 닫힘의 공간이었다가 현실 속에서는 열림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M^-형>화자는 닫힘과 열림의 복합적인 형태로 드러나지만 과거 속의 닫힌 공간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Co형>이 되는 것이다. 위 작품 외에도 「瓦家의 傳說」을 비롯한 <M^-형> 화자의 유형이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

지금까지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花蛇集』에서는 화자의 태도와 유형,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각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21] <M^0형>은 자기 고백적· 사색적· 성찰의

21) 화자의 유형과 시간적·공간적 배경과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화자	화제에 대한 태도	작품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M^0형>	자기고백· 사색·성찰	「自畵像」,「문둥이」,「壁」,「葉書」,「바다」,「門」,「부흥이」	어둠의 시간인 <D형>	닫힘인 공간인 <C형>

화자이다. 이런 화자는 시간적 배경 속에서 어둠의 시간인 <D형>으로 나타나며 공간적 배경에서는 닫힘의 배경인 <C형>으로 드러난다. 이는 화자가 사색과 반성을 위해 조용한 어둠의 시간적 배경과 생각이 분산되지 않는 닫혀진 공간적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 반성의 사색적 배경이 필요한 셈이다.

<M^{+}형> 화자는 남성적 요소가 더욱 가미된 강렬한 화자이다. 이런 화자는 모두 대낮·여름이라는 빛의 시간과, 툭 트인 자연 이라는 열림의 공간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화자는 본능의 세계에 몰입하면서도 '도덕적'인 관습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빛의 시간이면서도 어둠의 요소가 가미된 <L^{-}형>과 열림의 공간이면서도 닫힘의 요소가 가미된 <O^{-}형>으로 드러난다. 즉 관능과 도덕의 갈등 속에서 화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배경 속에 다른 변이소를 집어 넣어 자신을 가리려 한 것이다.

<M^{-}형>은 여성적 요소가 가미된 감성적·수동적 화자이다. 이 화자는 그리움과 서러움의 정서 속에 존재한다. 이런 정서는 주로 과거에 대한 회상과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과거와 현실 속에서의 화자는 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2>

화자	화제에 대한 태도	작품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M^{-}형>	강렬하고 본능적안 性의 몸부림	「花蛇」,「대낮」,「麥夏」,「입마춤」,「桃花桃花」,「正午의 언덕에서」,「高乙那의 딸」,「雄鷄(上)」,「雄鷄(下)」	어둠의 요소가 깔린 빛의 시간인 <L^{-}형>	닫힘의 요소가 깔린 열림의 공간인 <O^{-}형>

<표3>

화자	화제에 대한 태도	작품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M^{-}형>	그리움·서러움	「가시내」, 「瓦家의 傳說」,「水帶洞詩」,「봄」,「서름의 江물」,「斷片」,「西風賦」,「復活」	어둠의 요소가 강화된 어둠과 빛의 복합적인 시간 <D_L형 >	닫힘의 요소가 강화된 닫힘과 열림의 복합적 공간 <Co형 >

간적·공간적 배경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드러나지만 과거의 정서가 현실의 정서보다 지배적이어서 어둠과 닫힘이 강화된 <D_L>과 <Co>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태도에 따라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선택하고 조정함을 알 수 있다. 화자의 욕망이 정상을 이탈하거나 심한 갈등에 부딪히면 그 배경도 부분적으로 왜곡되거나 수정되어 전경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화자의 배경 선택은 작품이 잘 짜여지기 위한 기능적 조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화자이면서도 시간적 배경에서는 어둠을 지향하는 <D>유형이, 시간적 배경에서는 닫힘을 지향하는 <C>유형이 우세한 것은 당시가 일제의 암울한 시기라는 점과 자아에 대한 성찰, 원시적 본능에의 탐구, 성적인 화제를 다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語調의 選擇

의미란 것은 행위자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가치관은 시인 경우 화자의 어조에 의해서 더욱 잘 드러난다. 따라서 의미적 국면에서 화자에 대한 연구는 어조의 연구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화자와 청자에 따라 각기 다른 어조를 선택하여 말을 한다. 그리고 화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어조를 달리한다. 브룩스(C. Brooks)와 워렌(R. P. Warren)은 이 어조를 '시의 내적 형식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題材와 聽衆,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하기도 [22] 하였다.

그런데 화자를 그답게 만들고 그가 처한 상황과 정서와 욕망 또는 의

22) C. Brooks & R. P. Warren, *Understanding Poetry*(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0), p.181.

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 어조는 곧 화자의 성격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므로 화자의 <性 · 階層 · 年齡>의 결정이 곧 어조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자가 그 화제를 좋아하느냐, 화자의 현재 정서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거나 다급한 이야기는 먼저, 그리고 자세히 거론하며, 또 화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느냐에 따라 진술의 순위와 빈도를 비롯해 어세가 달라진다. 그리고, 화자가 격정에 휩싸였을 때에는 어순이 뒤틀리고,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며, 그로 인해 어세가 강해진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한결 정제되고 균형잡힌 문체를 선택하며, 우울할 때는 섬세한 문장과 긴 문장을 구사한다. 또한 시의 어조는 청자와 화자의 관계에서도 결정된다. 담화의 장에서 청자가 함께 할 경우,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에 있는냐 하위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어조의 유형에 대한 직접 분류는 듣는 이의 기준에 따라 자의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작품에 따라서는 어법에 따른 간접 분류보다 어조의 직접 분류가 더 유용할 수 있다. 『花蛇集』인 경우 어조를 탄생시키는 어법에 의한 분류로는 쉽게 화자의 유형에 따라 어조를 나눌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조의 분류를 의미적 국면의 특질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자 자신의 정서 상태와 화자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기준으로 나누어보기로 하겠다.

어조는 어떤 화자가 어떤 화제에서 어떻게 어울리고 있느냐에 따라 작품의 특질로 드러난다. 나아가 시인이 자주 쓰는 어조는 시정신과도 연결될 것이다. 『花蛇集』의 화자가 그 유형에 따라 일정한 어조를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 특질 규명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화자의 세 가지 유형과 어조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0형>의 화자는 자기 각성과 좌절의 화자이다. 이 화자는 어둠의 시간과 닫힘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중략>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트린
병든 숫개마냥 헐덕거리며 나는 왔다.

-「白畵像」에서

'애비는 종이었다'는 자기 비하이며 고백적 어조이다.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느러트린// 병든 숫개만양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역시 고백적 어조이면서 자신에 대한 반성의 태도인 자성적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이런 어조를 통해 자신의 밑바닥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백은 주로 과거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솔직한 노출로 수식이 필요 없다. 또한 '壁차고 나가 목매어 울리라! 벙어리처럼 // 오 - 壁아.'(「壁」)는 사방이 막힌 공간 속에서 탈출하고 싶은 화자의 기원적 어조가 들어 있다. 따라서 어둠과 닫힘의 배경 속에 자신의 얘기를 하는 <M^0형>의 화자는 자성적·고백적·기원적 어조로 드러나는 것이다.

화자의 유형 중 <M^+형>화자는 관능적이고 강렬한 성(性)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성의 세계는 <빛>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열림>이라는 공간적 배경으로 드러날 경우 더욱 다급해지게 된다. 다음 작품을 보면 화자의 그 다급함을 알 수 있다.

<전략>

꽃다님 같다.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 내던 달변의 혓바닥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소리 잃은 채 낼룽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물어 뜯어라. 원통히 물어 뜯어

달아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돌 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사향 방초ㅅ길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아내가 이브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石油 먹은 듯… 石油 먹은 듯… 가쁜 숨결이야
<후략>

- 「花蛇」에서

'돌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저 놈의 뒤를 따르는' 화자는 '가쁜 숨결'이다. '石油 먹은 듯… 石油 먹은 듯…' 다급한 어조다. 가쁜 숨결의 다급함 때문에 말은 자주 끊길 수 밖에 없다. 이런 다급함 속에선 말을 논리적으로 이어 나갈 수 없다. 강렬한 육욕의 세계는 논리적일 수 없으며, 은유되어 나타난다 해도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의 결합이 아닌 이질성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바쁜 숨결 속에서 논리적이고 정제된 언어의 결합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는 정제되지 않은 원색적 언어를 사용하여 비유하게 된다.

· 石油 먹은 듯… 石油 먹은 듯… 가쁜 숨결이야 (「花蛇」)
· 피먹은양 붉게 타오르는 고양이같이 고흔 입설 (「花蛇」)
· 핫슈 먹은듯 나자빠진 (「대낮」)
· 罪 있을듯 누른 더위 (「麥夏」)
· 즘생스런 우슴은 달드라 달드라 우름가치 달드라 (「입마춤」)

가쁜 숨결이 '石油 먹은' 것과 연결된다는 것은 대단히 이질적인 결합이다. 석유는 현대 문명에서 생겨난 물질로 먹는 것이 아니다. 화자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뜨거운 숨결이 불처럼 느껴져서 石油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 다급한 상태에서 '石油 먹은 듯'이라는 이치에 맞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하게 된 것이다. '피', '고양이', '핫슈'를 끌어들인 비유 또한 정제되지 않은 원색적인 비유에 해당된다. 화자는 다급함 속에서 잘 다듬어진 표현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표현을 직정적 어조로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대낮이라는 시간 속에서 관능적인 몸부림이 강하면 강할수록 화자의 '본능'과 '도덕' 사이의 갈등은 커지게 마련이다. 보통, 갈등 속에 놓인 사람은 조급해지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법이다. 따라서 화자의 정서 상태는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갈등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 어조는 다급하고 직정적일 수 밖에 없다.

<M 형>의 화자는 그리움·안타까움·서러움의 정서를 담고 있다. 과거에 대한 한 정서가 현재에 나타날 경우 그것은 주로 그리움으로 나타난다. 이럴 때의 화자는 현재의 순간적 정서가 아니므로 많은 생각을 거친 상태가 된다. 다음 작품은 과거에 대한,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 작품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전략>
여긔는 바로 十年전 옛날
초록 저고리 입었던 금女, 꽃각시 비녀하냐 웃든 三月의
금女, 나와 둘이 있든 곳.

머잖아 봄은 다시 오리니
금女 동생을 나는 얻으리
눈섭이 검은 금女 동생,
얻어선 새로 水帶洞 살리.

-「水帶洞詩」에서

위 작품은 고향과 고향의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 시다. 화자는 '十年전 옛날' 그 옛날에서도 가장 그리움과 설레임의 정서가 묻어나는 계절에 있다. '꽃각시 비녀하야 웃든 三月'에 '금女'와 '단둘이 있든 곳'을 회상하고 있다. 그 회상은 애절함으로 나타난다. '머잖아 봄은 다시 오리니'라는 표현은 그런 봄이 꼭 올 것을 애절한 어조로 기다리는 것이다. '눈섭이 검은 금女 동생'을 '얻어선 水帶洞 살리'에서도 다시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애절함이 들어 있는 것이다.

<M 형>의 화자들은 과거의 배경 속으로 들어갔다가 현실 속의 배경으로 다가서는 화자이다. 이런 화자들은 그리움의 정서를 애절한 어조에 담고 있다. 이런 애절함은 현재의 한 순간의 정서가 아님으로 다급하거나 직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과거의 회상을 통해 현실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과거 한 순간의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애절한 어조로 그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話者와 組織的 局面

시에서의 의미는 어떻게 조직되느냐에 따라 다른 시적 특질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의 분석은 의미적 국면과 더불어 조직적 국면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에서 組織的 局面에 해당하는 요소들로는 詩語, 心象, 리듬과 詩型을 들 수 있다. 이들 역시 화자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시인이 선택한 언어는 단순히 시인의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배경과 문학적 관습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조직적 국면에서의 시의 분석은 시어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어떤 음운의 어떤 시어가 어떤 통사 구조로 조직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 국면의 가장 기본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시어의 분석은 여러 층위로 나눌 수 있지만 주로 意味論的 層位, 統辭論的 層位, 語彙論的 層位, 音聲論的 層位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분석은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각 층위별 특질 뿐만 아니라 각 층위들의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혀 주기도 한다. 앞 장에서는 화자의 의미적 국면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직적 국면에서 시어를 통사론적 층위, 어휘론적 층위, 음성학적 층위를 화자의 유형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시어를 분석한다는 것은 일상어로부터 일탈된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전경화된 요소들의 체계성을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체계화된 요소들이 화자와 어떤 유기성을 갖는냐에 따라 작품의 특질 및 화자가 말하는 시어의 심리적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다. 시의 언어가 정상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낯설게 만들기(ostranenie)라고 불렀으며, 체코 구조주의자들은 이탈(deviation),

혹은 前景化(foregrounding)라고 불렀다. 전경화는 정상적 언어의 규범을 배경화(backgrounding)시키며 나타난다. 쉬클로프스키는 하나의 참신한 관점은 낯익은 대상을 낯설게 보이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새롭게 지각할 수 있게 한다.[23]고 했다. 따라서 전경화는 정상적 언어 규범, 혹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언어 규범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작품의 특질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화자는 모든 층위에서 시어를 변형시킬 수 있다. 변형된 부분은 전경화되면서 시적 특질로 나타나고 변형되지 않은 언어의 일반적 규칙은 배경화되어 뒤로 물러난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는 변형된 것과 변형되지 않은 것의 대립 또한 시의 한 특질이 될 수 있다.

화자의 유형별로 시어가 어떤 층위에서 어떻게 조직되었고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統辭論的 層位

統辭란 단어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구나 절·문장의 구조 및 기능을 다룬 것이다. 통사 단위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진술하는 형식인 동시에 리듬의 단위가 된다. 따라서 화자에 따라 통사구조의 특질이 달라진다. 자유분방한 시형과 대응된 짝을 이루는 율격은 남성적이며, 정제된 시형과 짝을 지니지 않는 율격은 여성적이다.[24]

남성화자라 하더라도 다급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原始話者일 경우 그

23) V. 쉬클로프스키,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 이론』, 문학과 사회연구소 譯, 청하, 1986. p.23.
24) 윤석산, 「소월시 연구」, 태학사, 1992. P. 31. 참조

특질은 달라진다. 또한 문장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완전히 갖추어졌는지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즉 화자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통사 조직도 달라지는 것이다.

시적인 문장은 가치 판단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의사 진술의 형태이다. 하지만 문장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문장과 문장의 관계에서 같은 성분이 어떻게 배열되었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문장과 비정상적인 문장으로 나뉜다. 본고 기본적인 문장 성분을 갖춘 형태를 完全 陳述型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형태를 不完全 陳述型이라 하겠다. 『花蛇集』에서 세 유형의 화자는 그 유형에 따라 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문장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경우 일상적 언어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극도의 상징적인 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상적 규범에 속에서 화자는 말을 한다. 하지만 문장의 기본 성분이 갖추어지지 않고 생략되거나 문장의 순서가 뒤틀린다거나 변형된다면 이것은 '前景化'되어 나타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花蛇」를 보면 변형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이 서로 대립되면서 대립구조로 나타난다. 여기서 변형된 문장이라 함은 통사 구조에 있어 도치된 문장을 말하며, 완전한 문장은 바른 어순으로 짜여진 문장을 말한다. 이때 서술격 조사가 생략된 문장도 변형된 문장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향(麝香) 박하(薄荷)의 뒤안길이다.
아름다운 베암.....
을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라운 몸둥
아리냐

꽃다님 같다.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 내던 달변의 혓바닥이

소리 잃은 채 낼룽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물어 뜯어라. 원통히 물어 뜯어

달아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돌 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麝香 芳草ㅅ길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아내가 이브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석유 먹은 듯… 석유 먹은 듯… 가쁜 숨결이야

바늘에 꼬여 두를까부다.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

클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흔 입설이다…
슴여라! 베암.

우리 순네는 스믈 난 색시, 고양이같이 고흔 입설… 슴여라!
베암.

- 「花蛇」全文

위 작품에서 도치된 문장은, '다라나거라 / 저놈의 대가리(저놈의 대가리 / 다라나거라)', '슴여라 / 베암(베암 / 슴여라)', '바눌에 꼬여 두를까부다 /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 / 바눌에 꼬여 두를까부다)', '크레오파투라의 / 피먹은양 붉게 타오르는 고흔 입설이다 (피먹은양 붉게 타오르는 / 크레오파투라의 고흔 입설이다)'등이다. '저놈의 대가리야' '다라나거라'로 외치려는 화자가 다급한 정서로 인해 서술어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다라나거라', '저놈의 대가리'가 되어 문장이 도치되고 있다. 사람이 다급해지거나 논리적이지 못할 때는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먼저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花蛇」에서는 '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주'와 '유혹', 그리고 '관능'과 '도덕' 사이에서 관능적인 몸부림이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강렬한 몸부림의 대립과 갈등의 정서로 드러나는는 문장에서도 뒤바뀐 형태와 명령형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 시는 또한 명사형의 끝맺음과 서술어의 끝맺음의 대립으로도 나눌 수 있다. '아름다운 베암…', '저놈의 대가리!', '아름다운 빛....', '슴여라! 베암.', '고흔 입설....', '스물난 색시'는 명사형으로 끝을 맺는 형태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서술격 조사의 의도적 생략과 의도적인 도치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麝香 薄荷의 / 뒤안길이다.', '저리도 징그러운 / 몸둥아리냐', '꽃다님 같다.', '푸른 하눌이다.', '원통히 무러뜯어', '가뿐 숨결이야', '바눌에 꼬여 / 두를까부다.', '고흔 입설이다.' 등은 서술어로 끝맺는 형태의 일부이다. 서술격 조사를 사용하고 있고, 서술어에도 도치가 없다.

이렇듯 <M⁺형> 화자가 드러나는 이 작품은 대립적 구조를 가지면서도 많은 부분이 의도적 생략과 도치의 형태로 구사되고 있다. 일상적 언어 규범에서 이탈된 언어 규범을 보이는 이 작품은 또한 명사형으로 끝맺는 경우 생략과 도치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슴여라! 베암' 처럼 감탄부호도 등장하며 정지 부호(,.)도 많다. 생략과 감탄과 정지는 시의 논리적 전개를 가로막는 구실을 한다. 원초적인 성본능의 세계는 논리적일 수 없으며, 그 숨결은 다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운문적 진술에서 생략과 뒤틀림 등은 불완전 진술로 작품의 전체에서 전경화되면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강렬한 성의 세계 속에서 갈등하는 주제의식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M⁺형> 화자의 진술 형태는 다른 작품에서도 불완전 진술형이거나 뒤틀린 문장 형태로 나타난다. .

또한 <M⁺형>화자의 작품에서는 2음보(foot)의 연첩이 동일한 어휘의 반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2음보는 가장 기본적인 리듬으로 원시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고도 숨가쁜 본능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형태이다.

가시내두 / 가시내두 // 가시내두 / 가시내두
콩밭 / 속으로만 // 작구 / 달아나고
울타리는 / 막우 // 자빠트려 / 노코
오라고 / 오라고 // 오라고만 / 그러면
<중략>
쑥니플 / 지근지근 // 니빨이 / 히허여케
즘생스런 / 우슴은 // 달드라 / 달드라 // 우름가치 / 달드라

-「입마춤」에서

「입맞춤」의 경우 전체적으로 거의가 2음보 연첩으로 짜여져 있다. 화자가 본능적 행위를 가쁜 숨결로 몰아 넣으면서 동일 어휘를 반복시키고 있다. 이 시의 행위자는 젊은 남녀이다. 젊음은 본능적일 때 더욱 약동한다. 이런 약동의 모습은 동일 어휘의 반복에서 원시적 리듬을 느낄 수 있다.

<M^{+}형> 화자가 등장하는 다른 작품에서도 불완전 진술이면서 때로는 정상적인 어순이 아닌 도치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극단적 혼란을 드러내는 원시화자의 한 특질이기도 하다. 이렇듯 리듬을 깨는 형태로 드러나거나 또는 다급한 2음보 연첩으로도 드러나는데 이것 또한 원초적이고 강렬한 성의 세계에서 다급하게 만드는 것이다.

<M^{0}형>이거나 <M 형> 화자는 사색적이거나 그리움의 화자이다. 따라서 화제에 대해서는 熟考한 화자들이다. 이런 숙고한 화자는 다급하거나 비논리적이지 않다. <M^{0}형> 화자의 작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전략>
스믈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八割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
어떤 이는 내 눈 앞에서 罪人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天痴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후략>

- 「自畵像」에서

위 작품에서 '나를 키운 건', '바람이다'는 주어와 서술어로 나눌 수 있다. '나는', '뉘우치지 않을란다' 도 마찬가지이다. 반성적·사색적인 화자는 <어둠>과 <닫힘>의 배경 속에 등장함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런 배경 속의 화자는 강렬한 화자가 아니다. 원초적이거나 다급하지도 않다. 따라서 문장에서도 불완전 진술형이거나 도치된 형태가 아닌 완전 진술형의 갖춰진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전략>
고요히 吐血하며 소리없이 죽어갔다는 淑은,
유체 손톱이 아름다운 게집애였다한다.

- 「瓦家의 傳說」에서

위 작품은 <M 형>화자가 드러난 작품이다. 문장이 필수 문장 성분을 갖추고 있으며 의미와 율행 단위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절함과 그리움의 화자 또한 <어둠>과 <빛>의 복합적인 시간 속에 있지만 <어둠>이 강화된 배경 속에 있으며, 공간 또한 <닫힘>이 강화된 공간 속에 등장한다. 고향과 고향의 연인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는 본능적 성의 세계처럼 원초적이고 다급한 것은 아니다.

두 유형의 작품 모두 기본적 문장 성분이 갖춰지고 문장의 어순도 뒤틀림이 없는 정치된 문장이다. 따라서 <M^0형>과 <M^-형> 화자가 등장하는 경우 의미와 율행의 단위로 문장의 기본적 형식이 갖춰진 完全 陳述型이 됨을 알 수 있다.

2. 語彙論的 層位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배경에 따라 그에 적합한 어휘가 선택된다. 시어의 분석에서 어휘론적 층위는 한 어휘가 다른 어휘와 만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와 어떤 계열의 어휘가 반복되어 나타나는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어휘는 일상적이고 자연적이며 모국어일 때 친숙함을 느끼고, 비일상적이고 인위적이며 외래어로 쓰일 때 낯설음을 느낀다. 시인은 이런 어휘들을 전경화(foregrounding)시키기도 하고 배경화(back-grounding)시키기도 하는데, 전경화는 언어의 일상적 규범을 배경화하면서 지배소에 초점을 맞추게 하거나 어휘를 확장·초월하게 만든다.

낯설게 만들기에서 어휘론적 층위에서는 의미의 선명도에 따라 <추사:구상>과 <동질:이질>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어휘의 탄생 배경에 따라 <인공적인 것:자연적인 것>, <동양적인 것:서양적인 것>, <고전적인 것:현대적인 것>, 계층에 따라서는 <상류층의 어휘:하류층의 어휘>, <여성적 어휘:남성적 어휘> 등으로 나누고,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삼은 다음 그것에서 이탈 여부를 따질 수 있다.

『花蛇集』에서는 화자의 유형에 따라, 어휘론적 층위에서도 다르게 분류된다. 화자에 따라 이질적 어휘를 많이 쓴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이질적인 어휘의 사용은 인과관계를 초월한 진술이기 때문에 독자의 자율적 해석권을 강화하고 감상 시간을 지연시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적 상상력을 확대시켜주는 구실을 한다.

다음 작품은 <M⁺형> 화자의 작품이다. 어휘론적 층위에서는 어떤 어휘를 선택하지는 살펴보겠다.

> 어찌하야 나는 사랑하는자의 피가 먹고싶습니까
> 「雲母石棺」 속에 막다아레나!
>
> 닭의 벼슬은 心臟우에 피인꽃이라
> 구름이 왼통 젖어 흐르나
> 막다아레나의 薔薇 꽃다발.
> <후략>
>
> -「雄鷄(下)」에서

'雲母石棺'이나 '막다아레나'는 이질적인 어휘이다, 시인은 한자로의 의도적 표기와 서구적인 어휘를 선택함으로서 일상적 시어를 전경화시키고 있다. <M⁺형>화자의 다른 작품에서도 이런 이질적 어휘가 등장하고 있다. 「花蛇」에서 보면 동양적인 어휘와 서양적인 어휘의 대비라든가, 고전적인 어휘와 현대적인 어휘의 대비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이질적 단어의 대비는 시적 긴장을 유발시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는 동시에 상상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브 · 크레오파투라 ⇔ 순네 · 스믈난 색시 ', '麝香 薄荷 · 麝香 芳草ㅅ 길 · 꽃다님 ⇔ 石油 '(「花蛇」)에서 보면 '이브'와 '크레오파투라'는 서양의 여성이며, '순네'와 '색시'는 동양의 여성이다. '이브'와 '크레오파투라'의 등장은 '순네', '색시'에 비해 이질적이며 강렬한 느낌을 준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젊고 관능적인 성격의 여성이다. 하지만 '순네'와 '색시' 만 등장한 것보다 '이브'와 '크레오파투라'의 등장은 긴장감과 현대적 느낌을 동시에 제공한다. '現代的'이라는 것은 現代人의 다양한 내면 의식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포함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성을 감추고 서양에서는 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습을 '이브', '크레오파투라'와 '순네'를 결합시켜 性과 原罪意識이 도덕과 관능 사이에서 더욱 갈등하게 하는 요소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麝香薄荷'라든가 '麝香 芳草ㅅ길', '꽃다님'같은 전통적 시어와 '石油'라는 현대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서도 현대인의 복합적인 내면 의식을 적절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또한'石油'의 등장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동질성을 파괴함으로써 독자를 아연하게 만들고, 긴장시킴으로써 시적 상상력을 확장시켜 준다.

<M^{+}형> 화자는 도덕과 관능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관능을 쫓는 강렬한 화자이다. 이런 화자는 복합적 내면 의식을 갖는다. 이질적 어휘의 대비를 통해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더욱 극명해지고, 현대인의 복잡하고 이중적인 내면 의식이 잘 반영되고 있다. 즉 이질적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일상적인 어휘와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M^{0}형>이나 <M 형>의 화자는 자신의 각성과 그리움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화자이다. 사색의 공간 안에서 자신을 생각하거나 과거의 정서 속에 있는 화자는 대립과 갈등의 정서로 표출되는 <M^{+}형>의 화자에 비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

해와 하늘 빛이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우렀다.
- 「문둥이」 全文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 작품은 <M^0형>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이다. '해'와 '하늘', '보리밭', '달' 등 같은 계열의 어휘들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 좌절하거나 사색하는 화자는 일상적 어휘로도 충분한 것이다. 다음은 <M^-형>화자의 작품이다.

흰 무명옷 가라입고 난 마음
싸늘한 돌담에 기대어 서면
사뭇 숫스러워지는 생각, 高句麗에 사는듯
아스럼 눈감었든 내넋의 시골.
별 생겨나듯 도라오는 사투리.
<후략>

-「水帶洞詩」에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 작품에서 '흰 무명옷'을 입고 '돌담'에 서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 또한 이질적 어휘의 대비와는 거리가 멀다. 사색하는 화자가 이질적인 어휘를 사용한다면 화자의 생각은 분산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릴 수 없게 된다. 또한 과거 속의 정서도 이질적인 어휘와는 거리가 멀다.

<M^0형>이나 <M^-형> 화자의 다른 작품들도 자신에 대한 반성과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일상적인 어휘로 말하고 있다. 숙고되고 침잔된 정서에서는 화자 자신이 어휘의 강화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音韻論的 層位

같은 통사 구조와 어휘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음운이 어떻게 변형되느냐에 따라 의미와 느낌이 달라진다. 한 편의 詩를 대할 때 조음양상

들의 차이는 단순히 느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유한 의미에 독특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음성론적 층위란 바로 시를 대할 때, 쓰여진 음운이 그 시에서 어떤 체계성을 가지면서 어떤 독자적 의미로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음운론적 층위에서 낯설게 만들기는 그 어휘의 기본 의미가 유지되도록 변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말의 용언의 경우 의미를 나타내는 어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소를 수정하거나, 그런 수정이 불가능한 품사들인 경우에는 開口度나 調音點을 바꾸는 정도로 나타난다.

『花蛇集』에서는 일부 음운의 의도적 수정과 그런 음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어휘의 의도적인 선택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화자가 그 의미에 적합한 음성 조직으로 조정하였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어휘를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M⁺형> 화자의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변용한 음운의 사용이 나타난다. 을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라운 몸둥아리냐(「花蛇」) 여기서는 '태어났기에'를 제외한 각 시어마다 /r/, /l/같은 유음(流音)이 쓰이고 있다. 이것들은 '베암'의 몸뚱어리와 성의 미끄러운 느낌을 강화시켜주는 구실을 한다. 즉 관능적인 성의 세계를 부각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을마나', '크다란', '징그라운' 같은 사투리도 의도적인 쓰임이다. 하나의 행에 유사한 음운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런 음운을 의도적으로 골라 썼음을 의미하고, 사투리를 쓴 것은 표준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를 '을마나'로 '커다란'을 '크다란'으로 선택한 것은 <ə : i>로 개구도를 좁혀 어둡고 우울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며, '징그러운'을 '징그라운'으로 고쳐 쓴 것은 <ə : a>로 개구도를 넓혀 억눌린 감정을 터드리는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유의하여 읽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른 작품에서도 음성모음과 모음성 자음의 의도적 사용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유음의 의도적 변용과 함께 그 의미에 적합한 음성 조직의 어휘를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구도가 낮은 양성모음의 음상징(sound symbol)은 밝고, 작고 예리하며, 빠른 느낌을 주는 동시에, 개구도가 높은 음성모음의 음상징은 어둡고, 무겁고, 크고, 둔하고, 두텁고, 느린 느낌을 준다 .

「花蛇」에서 양성모음은 주로 '뱀'의 아름다움을 수식하는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음성모음은 '뱀'에 대한 화자(persona)의 태도나 감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다. '꽃다님'같이 아름다운 '뱀'을 수식하는 부분에서 '꽃대님'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꽃다님'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양성모음의 음상징과 연결되어 밝고 작고 예리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다라나거라'의 부분에서는 거의가 /ㅏ /의 양성모음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양성모음의 특징인 빠른 느낌을 주는 데 적합하다. 이와 대립되는 음성모음은 /ㅡ / 모음의 의도적 사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을마다 크다란'에서는 어둡고, 무겁고, 크고, 둔한 느낌을 찾을 수 있으며 '낼룽그리는'에서는 '날름거리는'의 의도적 변용을 찾을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와 같은 교차적 대립은 대상과 화자의 정조(mood) 상태를 드러내는 동시에 '꽃뱀'에 대한 '친화(+)'와 '이탈(-)'의 '의지적 행위'와 '비의지적 행위'등의 양면적 욕구와 갈등 때문이라 보여진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뱀의 둥글고 미끄럽고 유동적인 형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뱀을 묘사하거나 이에 대한 상징물을 제시할 때는 모음성 자음(ㄴ,ㄹ,ㅁ,ㅇ)을 구사하고 있으며, 화자의 대상에 대한 명령은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비모음성 자음을 구사하고 있다. 혐오의 의미를 지닌 시어가 친화적인 모음성 자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의식에서는 대상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면서도 그 저변에 깔려있는 무의식에서는 소유하고 싶은 감정이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花蛇」에서 뿐만 아니라 <M⁺형> 화자의 다른 작품에서도 음성모음과 모음성 자음이 대비를 통해 '본능'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심리를 잘 드러내 주고 있으며, 개구도가 높은 모음과 모음성 자음을 자주 구사함으로써 관능적 음악을 제공해 주고 있다.

<M⁰형>화자와 <M⁻형>화자는 통사론적 층위에서는 완전 진술형에다, 어휘론적 층위에서는 일상적 어휘를 통해 사색과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 화자들은 또한 음성론적 층위에서는 대부분이 의도적 변용을 거치지 않은 음운의 어휘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⁰형>

저놈은 대체 무슨 심술로 한밤중만 되면
차저와서는 꿍꿍앓고 있는 것일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또 나와 나의 안해될 사람에게도
분명히 저놈은 무슨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략>

-「부흥이」에서

<M⁻형>

복사꽃 피고, 복사꽃 지고, 뱀이 눈뜨고, 초록제비 무처오는
하늬바람우에 혼령있는 하눌이어. 피가 잘 도라… 아무病도
없으면 가시내야. 슬픈일좀 슬픔일좀, 있어야겠다.

-「봄」全文

「부흥이」에서 화자는 '한밤중'만 되면 찾아와서 울고 있는 부흥이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는 것이다. 이런 불만은 오랫동

안 내면에서 누적되어 온 것이다. 음운을 의도적으로 고쳐서 표현한다면 그 불만은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기교에서 나온 것이라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반성과 좌절과 기원의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리는 화자이다. 따라서 <M^0형>화자와 <M 형>화자의 이런 정서는 의도적인 음운의 변동이 불필요한 것이다.

이상 작품의 組織的 局面에서 시어의 분석을 통해 화자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도덕'과 '본능'의 갈등으로 드러나는 다급한 性의 세계를 노래한 <M^+형> 화자는 어둠의 요소가 깔린 시간적 배경과 닫힘의 요소가 깔린 공간적 배경 속에 있었다. 이것은 화자의 갈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 이런 장치처럼 조직적 국면에서도 또한 독특한 특질을 드러내고 있다.

통사론적 층위에서는 불완전 진술형과 뒤틀린 문장을 통해 비논리적이고 다급한 화자의 갈등과 대립의 정서를 뚜렷이 표출하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원시화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어휘론적 층위에서는 의도적인 한자로의 표기, 색채어의 대비, 동양적 어휘와 서양적 어휘의 대비, 고전적 어휘와 현대적 어휘의 대비 등 이질적 어휘의 사용을 통해 현대인의 대립·갈등의 복잡한 내면의식을 잘 드러내 주었다.

또한 음성론적 층위에서는 개구도가 높은 음운, 모음성 자음의 의도적 사용 등 음운의 의도적 변용과 그런 어휘의 선택을 통해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이에 비해 <M^0형>화자와 <M 형>화자는 <M^+형>화자와는 달리 일상적인 시어의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사론적 층위에서는 기본적 문장 성분이 갖춰지고 문장의 어순도 뒤틀림이 없는 정치된 문장이며, 의미와 율행 단위로 문장의 기본적 형식이 갖춰진 완전 진술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으로 되어 있다.

어휘론적 층위에서도 일상적인 어휘의 사용으로 나타나며, 음운론적 층위에서도 의도적인 변용이 없는 음운의 사용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어둠과 닫힘이 지배적인 배경 안에서 사색적이고 그리움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유형의 화자들이 침잔된 정서로 어휘의 강화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강렬한 몸부림으로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갖는 <M^{+}형>화자와 구별되는 것이다.

화자의 유형 중 강화된 남성화자인 <M^{+}형>화자는 조직적 국면에서도 일상적 언어 규범을 이탈한 낯설게 만들기를 통해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화자의 유형 중 기본적 남성화자인 <M^{0}형>화자와 약화된 남성화자인 <M^{-}형>화자는 조직적 국면에서 강화되지 않은 일상적 언어규범 속에서 그들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질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화자에 의해 조직적 국면에서도 시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됨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花蛇集』의 特質 및 詩史的 位置

『花蛇集』은 1941년에 출간됐지만 1936년 「壁」이 당선된 이후 1930년대 「시인부락」을 통해 발표했던 작품들이 모아진 것이다. 따라서 1930년대의 시의 부류에 포함되는 작품집이다. 『花蛇集』의 특질과 시사적 위치의 규명에 앞서 1930년대의 시문학사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1930년대의 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30년대에 이르러 그 이전의 근대적 차원에 머물렀던 미성숙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었고 유달리 많은 시인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시의 흐름은 네 부류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로 시문학파를 들 수 있다. 반이데올로기 순수 서정시를 지향한 이들은 새롭고 창조적인 언어의 세계를 계발했는데, 박용철, 정지용, 김영랑, 시석정, 이하윤 등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둘째로 모더니즘 갈래의 시를 들 수 있다. 이 모더니즘은 이미지즘-주지주의계의 온건한 모더니즘인 김기림, 김광균, 장만영 등의 모더니즘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격렬하게 부정·파괴의 단면을 띠고 나온 이상과 「三四文學」동인들의 초현실주의 계열이 있다. 이들 역시 실험주의의 시로 순수 서정시의 산맥을 이루었다.

셋째로, 생의 본바탕을 탐구한 서정주·오장환·유치환의 시세계를 들 수 있다. 현대시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추기에 온 정력을 기울이며 서구에서 개발한 전위 기법을 수용하기에 급급한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의 생 자체에 대한 치열한 탐구로 나타난 부류이다.

넷째로, 현대적인 문체, 모습을 갖추면서도 그 뿌리의 한 쪽이 우리의 토속성에 맞물린 작품 세계를 쓴 신석초, 백석, 이용악 등이 있다.

*복합 초점

이런 30년대의 詩史 속에서 『花蛇集』이 다른 시들과 다른 특질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먼저 『花蛇集』의 화자는 대부분이 男性話者이다.

1936년 신춘문예에 <壁>이 당선되면서 11월에 만든 동인지 <詩人部落>의 창간 목적을 보면 중심과제를 '生命'의 탐구와 이것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과제의 실천은 남성화자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었다. 김영랑류의 섬세하기만 한 언어 미학과 정지용류의 감각적 기교주의만을 접하던 1930년대에서 미당의 '生命派' 활동은 원색적인 육정과 생명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의 의식을 직정적 언어로 표현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영랑, 유치환, 그리고 청록파 시인들의 초기시보다 미당의 초기시가 <현대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과는 달리 서정주가 유럽 모더니즘의 충격 속에서 많은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시 모더니즘을 받아들인 이상, 김기림과 미당의 차이는 미당의 시가 토속적인 정신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이다.[25] 이런 토속적인 정신 또한 남성화자가 드러나기 쉬운 바탕이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남성화자는 아니마의 정도에 따라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화자가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본형인 <M^0형> 화자와 기본형의 화자보다 남성적 요소가 더욱 가미된 강렬한 남성화자인 <M^+형> 화자, 여성적 요소가 가미된 여성화된 남성화자인 <M^-형>화자가 그것이다. 이 세 유형의 화자들은 서로 다른 각 국면의 요소들과 어울려 그들만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유형 중 대상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면서 본능적인 성(性)을 다룬 작품 속의 <M^+형> 화자는 가장 독특한 특질을 보인다. 의미적 국면에서 <M^+형> 화자가 드러난 작품은 의도적으로 배경이 조정되었데, 빛의 시간(<L형>)이면서도 어둠 지향의 <L 형>이라는 시간의 조정

25) 황동규, 「탈의 완성과 해체」(『미당 연구』, 민음사, 1994) p.130.

과, 열린 공간(<O형>)이면서도 닫힘 지향의 <O⁻형>이라는 공간의 조정은 도덕과 본능 속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유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낮이라는 시간적 배경의 설정 또한 성에 관한 화제가 밤의 배경 속에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 당대 시인들과의 변별적인 요소이며, 성에 대한 과감하고 강렬한 표현은 화자와 화제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었다. 이것은 배경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조직적 국면에서도 <M⁺형>의 화자는 독특한 특질을 보여준다. 시어가 일상 언어의 규범을 이탈하여 전경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통사론적 층위에서는 원시화자의 특질인 불완전한 진술을 담고 있다. 생략과 감탄·명령형의 사용은 관능적 성관계가 비논리적이며 다급하다는 것을 유기적으로 드러내준 것이다. 그리고 도치된 문장은 화자의 극단적 혼란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원시화자의 출현은 당대 시인들과의 변별적인 요소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동질성을 파괴하는 폭력적 비유의 등장도 <M⁺형>의 화자의 특질이다. 전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미당시가 거리를 이동하고 복합 화제를 통해 표현되어서[26] 은유를 쓸 경우 전달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질적 어휘의 사용과 사투리로의 의도적 표현과 의도적인 음운의 변용도 <M⁺형>화자의 특질로 드러난다. 이런 요소들은 시어를 전경화시켜주면서 긴장감을 주고, 시어의 확대에도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복합적 내면 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1930년대 한국의 시문학은 경향파의 퇴조와 함께 등장한 순수문학과 모더니즘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때 미당은 '생명'의 탐구를 중심과제로 내걸고 <詩人部落>을 창간해, 김영랑 류의 나약하고 섬세한 언

26) 변종태, 앞의 논문, p.43

어미학이나, 정지용류의 감각적 기교주의를 벗어나 보다 원색적 육성으로 직정적이고 생명적인 목소리로 노래해 당시에 독자들에게 현대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가 세 유형의 남성화자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테마를 각 국면의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드러낸 것은 현대시의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서정과 실험에 빠져 인간의 生에 대한 치열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당시 시 문학의 한 부분을 새로운 모습으로 메울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로 올수록 현대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가 각 층위별로 잘 드러난 작품이 總體的인 詩가 된다. 미당의『花蛇集』은 이런 현대인의 한 단면이 아닌 대립과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총체적 의식을 솔직하고 유기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그 당시 시문학사에서 뛰어난 시정신의 산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結論

시인은 테마나 시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먼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인 화자를 선택한다. 그 후 그에 맞는 時間的·空間的 背景을 부여하고 또한 화제를 直敍할 것인지, 隱喩할 것인지의 구조적 부분을 정하게 되며 語調와 선택되는 시어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시에서의 화자는 서사적 장르에서의 해설자나 중개자의 기능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주인물의 성격을 지닌 존재로서 意味的 局面에서 組織的 局面까지 모든 부분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시의 분석은 바로 이 화자를 규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화자 연구는 다른 시적 요소들과의 연관을 통해 작품의 특질을 유기적으로 규명해 줄 것이고, 화자 이론 적용의 필요성을 확대시켜 객관적 문학 연구의 방법론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미당의 초기시 중에서 한국시의 전통적 관습과는 전혀 이질적인 시세계를 보여 『花蛇集』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의 전체 층위를 크게 <意味的>, <組織的> 局面으로 나누어, 의미적 국면에서는 화자와 그에 따른 배경 그리고 화제를, 조직적 국면에서는 화자가 선택한 시어를 통사론적 층위, 어휘론적 층위, 음운론적 층위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花蛇集』의 화자는 대부분 남성 화자이다. 이것은 1936년 창간한 <시인부락>의 창간 목적에서 내세운 '생명'의 탐구와 그것의 집중적 표현은 이 남성화자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난다. 이 남성 화자는 화자의 화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시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화자가 대상과 분리되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기본형인 <남성화자(M^0형)>로 자기 반성과 사색으로 나타난다. 이 화자가 기본형이 된 것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

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는, 화자가 대상에 대해 적그적이고 공격적인 유형으로 본능적이고 강렬한 性의 세계를 그린 남성적 요소가 더욱 강화된 <남성화자(M^{+}형)>이다. 셋째는 화자가 대상에 몰입해 그리움과 서러움의 정서를 그리는 화자로 여성적 요소가 가미된 <남성화자(M 형)>이다. 『花蛇集』에서의 화자는 그 유형에 따라 각 국면의 요소들에서 서로 다른 특질을 나타낸다.

2. 의미적 국면에서 <M^{0}형>의 화자는 <어둠>의 시간인 <D형> 속에 존재한다. 이 유형은 공간적 배경 속에서도 <닫힌 공간> 속에 있는데, 이것은 자기 각성과 좌절의 화자가 사색의 시간과 공간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조는 고백적·애원적 어조가 된다.

3. <M^{+}형>의 화자는 빛의 시간 속에 어둠이라는 요소를 깔고 있다. <L 형>의 배경은 관능적인 몸부림과 도덕적 관습과 갈등에 의해 조정된 배경이다. 공간적 배경 또한 <O 형>으로 열림 속에서 닫힘을 지향하는 요소를 깔고 있다. 어조는 다급하고 직정적일 수 밖에 없다.

4. <M 형>화자는 시간적 배경이 <D_{L}형>의 복합적 형태로 드러나는데 화자의 그리움과 서러움의 정서가 과거와 현실 속에서 겹쳐 드러나기 때문이다. 공간적 배경에서도 <Co형>의 복합적 배경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어조는 애절하다.

5. 조직적 국면에서 <M^{+}형>의 화자는 통사론적 층위에서 불완전한 진술이면서, 때로는 도치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급하고 강렬한 원시화자의 특질인 것이다. <M^{0}형>이거나 <M 형>인 경우는 한 연의 끝맺음이 대체로 문장 성분이 갖춰진 완전한 진술 형태로 드러난다.

6. 어휘론적 층위에서 보면, <M^{+}형>화자의 작품에서는 이질적 어휘가 자주 등장하여 전경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관능적인 성의 세계지만, 신선함을 제공하고 화자의 갈등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M^{0}형>이나 <M 형>의 화자는 일상적인 어휘로 표출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 음운론적 층위를 보면, <M^{+}형>화자는 음운이 의도적으로 변형되었고 <M^{0}형>과 <M^{-}형>화자에서는 대부분이 의도적 변용을 거치지 않은 음운을 사용하고 있다.

8. 조직적 국면에서도 의미적 국면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유형에 따라 다른 특질로 나타나는데 남성적 요소가 더욱 강화된 <M^{+}형>화자인 경우는 일상적 언어 규범에서 벗어난 강화된 언어를 통해 낯설게 만들어 더욱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M^{0}형>과 <M^{-}형>화자는 기본적이거나 약화된 남성화자로서 조직적 국면에서도 일상적 언어 규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들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花蛇集』의 특질은 각 유형별 화자들이 의미와 구조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며, 강렬한 남성화자의 등장을 통해 시에서의 性의 영역을 확대시켰 주었다. 그리고 성의 세계를 낯으로 삼은 것은 당대 시인과의 변별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의도적인 배경의 조정은 갈등 구조를 뚜렷이 드러내 주고 있으며, 화자가 화제에 대한 태도도 유형에 따라 적절한 어조로 표현되고 있다.

미당은 '생명'의 탐구를 중심 과제로 내걸고 <詩人部落>을 창간하여, 김영랑 류의 나약하고 섬세한 언어미학이나, 정지용류의 감각적 기교주의를 벗어나 보다 원색적 육성으로 직정적이고 생명적인 목소리로 노래해 당시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테마를 남성화자를 통해 각 국면의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드러냄으로써 현대시의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서도 서정과 실험에 빠져 인간의 生에 대한 치열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당시 시 문학의 한 부분을 새로운 모습으로 메울 수 있었다.

현대로 올수록 현대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가 각 층위별로 잘 드러난 작품이 總體的인 詩가 된다. 미당의『花蛇集』은 이런 현대인의 한 단면이 아닌 대립과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총체적 의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솔직하고 유기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그 당시 시문학사에서 뛰어난 시정신의 산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參 考 文 獻 ***

1. 국내 논저

<저서>

김대행.『韓國詩歌構造硏究』. 삼영사, 1976.

——.『韻律』, 문학과 지성사, 1984.

김병택.『 바벨탑의 言語』, 文學藝術社, 1990

김시태.『現代詩와 傳統』, 성문각,1981.

김열규 외.『정신분석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2.

김재홍.『韓國現代詩人 硏究』, 일지사, 1986.

김준오.『詩論』, 삼지원, 1994.

김대행.『韓國詩歌 構造硏究』, 삼영사, 1976.

송하선.『미당서정주연구』, 선일문화사, 1991.

윤석산.『현대시학』, 새미, 1996.

—— 외.『문학의 이해』, 태학사, 1994.

이부영.『分析 心理學』, 일조각, 1978.

이승훈 엮음.『한국문학과 구조주의』, 문학과 비평사, 1988.

28인 공동집필.『韓國現代文學史』, 現代文學, 1989.

조연현 외.『徐廷柱 硏究』, 동화출판공사, 1980.

—— 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하현식.『한국시인론』, 백산출판사, 1992.

홍문표.『시어론』, 양문각, 1994.

황패강 외 편.『韓國文學硏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허웅.『國語音韻學』, 샘출판사, 198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논문>

김석준.「서정주 초기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김시태.「徐廷柱의 逆說的 意味」,『현대문학』1975. 4월.

김홍진.「서정주 시의 원형 이미지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1992.

김희영.「記號學的 批評의 理論과 實際」,『문학과 비평』, 창간호(1987)

문덕수. 「서정주론」, 『금정최원규박사화갑기념논총』, 충남대출판부, 1993. 10

문정희.「서정주 시 연구 - 물의 심상과 상징체계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박사논문, 1993

박순희.「서정주 시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1994.

서익환.「徐廷柱詩硏究」,『한국어문학 탐구』, 민족문화사, 1984.

안동주.「未堂 徐廷柱 硏究」,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1982.

안성부.「徐廷柱의 詩世界」,『창작과 비평』, 26호, 1972

육근웅.「서정주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윤석산.「소월시 연구 - 話者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천경록.「『花蛇集』의 이미지 硏究」,『선청어문』, 제14,15합집,서울사대 국어교육과, 1986.

최동현.「徐廷柱 詩硏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1982.

최두석.「서정주론」,『선청어문』, 서울대 사범대학, 1992. 9

최원규.「徐廷柱의 詩精神 硏究」,『국어국문학』49·50 합병호, 1970.

「서정주와 불교정신」,『한국현대시사연구』,일지사, 1983.

황인교.「서정주 시의 상상력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198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번역서

노드롭 프라이.『비평의 해부』, 임철규 역, 한길사, 1982.
다니엘 들라스 外.『言語學과 詩學』유제식 外 역, 인동, 1985.
르네 웰렉·오스틴워렌.『文學의 理論』, 이경수 역, 문예출판사, 1987,
빅토르 어얼리치.『러시아 形式主義』, 박거용 역, 문학과 지성사, 1983.
유리로트만.『詩 텍스트의 構造 分析』유제천 역, 가나, 1987.
칼 구스타프 융.『무의식의 분석』, 권오석 역, 홍신문화사, 1990.
캘빈S.호올.『프로이드 心理學 入門』, 황문수 역, 범우사, 1977.
M. 꾸르떼.『문학연구의 방법론』, 오원교 역.홍성사, 1986.
V. 쉬클로프스키.『러시아 형식주의 문학 이론』, 문학과 사회연구소 역, 청하, 1986.
J. P. Weber.『현대비평의 원리』, 김현 편역, 기린원, 198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STUDY ON SEO JEONG-JU'S 『HWA-SAH COLLECTION』

SEE-YOUL OH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eok-San Yoon

Supposing the persona of a poem is the subject of all aspects, this study is on Mi-dang's Hwa-sa collection to show how the persona and factors of each aspect-background, tone, and the statement structure of poetic words- is combined.

1. The persona of the poem is a masculine persona. It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he basic type ,Masculine persona M° > which tells its own story, and express itself to be self-humbling, desperation, a cry in distress. The reason this persona can be basic is that time setting is the colonial period in 1930 and the poem is influenced by Boudelaire and Nietzsche. The others are <Masculine persona M^{+}> reinforced by intense masculine elements, and the <Masculine persona M^{-}> added by feminne elements of longing and grief.

2. From the semantic aspect, the type <M^{0}> persona exists in Type <D> of the time of darkness. It turns out that the persona characterized by self awakening and frustration is put in the time and space of meditiation since this type space setting is closed. Therefore this type has the tone of confessing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d pleading.

3. The persona of <type M^{+}> lays the element of darkeness in the time of light. The setting <type L^{-}> is manipulated by carnal desire, morals, and conflicts. Its space setting is <type O^{-}>, which lays the elements pointing to closedness in openess. Its tone is urgent and passionate.

4. The persona of <type M^{-}> turns out that it takes a complex form of <O^{L}> as its time setting, since the emotion of longing and grief express themselves overlayed in past and present. it can also be a complex setting <type C^{o}> in space and its tone is very appealing.

5. From the systematic aspect as well as from the semantic aspect, the lexical layer, the phonological layer come out with the different qualities according to the persona types. The type <M^{+}> enhanced with masculine factors is made into the more intensified one through strengthened language freed from ordinary language norm.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On the other hand, the personas of type <M^{o}>, type<M^{-}> express their emotions without breaking ordinary language norm as the basic and weakend masculine personas.

As described above, Hwa-sha collection has two major characteristics: one is that each type of the personas is closely connected according its meaning and structure: the other i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nse masculine persona makes the territory of sex expanded in the poetry world. As a matter of fact Mi-da makes his poems distinctive and unique among contempory poems by setting up the time of sex as daytime. The manipulation of setting and poetic diction reveals the structure of conflict clearly.

Mi-dang founded < the Village of Poets> under the slogan of 'quest for life' and presented new features of direct, passionate, lively voice, which was

different from Kim Yong-lang's fragile, sensitive aesthetics, and Chong Ji-yong's sensuous technicalism. We can also find quality of modern poems in his poetry, which was caused with the organic combination of the thems and the factors of each aspect through male personas. His poetry filled up the lack of the contempory poems which indulged in sentiment and experiment, therefore neglected struggling on the quest for human life.

The characteristic of modern, integrated poetry is to present moderns' various complex mentality. Mi-dang's [Hwasha collection] place itself as one of the greatest production in poetry history by showing the whole psychology of moderns who have to survive in conflict and confrontati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